

개척교회 예배공간의 맥락특수성을 고려한 강대상 디자인 개발

조형언어 도출과 사용자 수용성 경향 분석을 중심으로

Development of a Pulpit Design Considering the Context-Specificity of a Church Plant Worship Space

Focusing on the Derivation of Formative Language and the Analysis of User Acceptance Tendencies

주 저 자 : 조부선 (Cho, Bu Sun) 공작마마 대표

교 신 저 자 : 정성모 (Chung, Sung Mo) 한양사이버대학교 디자인학부 교수
rociochung@hycu.ac.kr

<https://doi.org/10.46248/kidrs.2026.3.216>

접수일 2026. 08. 17. / 심사완료일 2026. 08. 27. / 게재확정일 2026. 09. 07. / 게재일 2026. 09. 30.

Abstract

This study aims to develop a pulpit design suitable for the worship space of a church plant and to analyze user acceptance tendencies among congregants in a single case. A church plant was understood as a context-specific design environment in which limited spatial conditions, relations between pastor and congregants, worship rituals, religious symbols, and faith-based acceptance interact. Based on this perspective, the study examined a context-specific design, Lewin's field theory, and semiotic interpretation of religious symbols. The design concept was established as "restrained symbolic communication." The cross was translated into the frontal structure and central axis of the pulpit, while the symbol of fire was expressed through carbonized pine laminated wood, surface texture, and dark color tones. After production and installation, an exploratory survey was conducted with 63 of 83 congregant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pulpit tended to be perceived as dynamic, flexible, soft, and visually weighty. The cross was relatively clearly accepted, whereas the symbolic meaning of fire through the carbonized surface was accepted in a limited manner. This study suggests that a context-specific design development case can connect contextual interpretation, formative language development, production, installation, and user acceptance tendency analysis in community-based design.

Keyword

Context-Specificity(맥락특수성), Pulpit Design(강대상 디자인), User Acceptance Tendency Analysis(사용자 수용성 경향 분석)

요약

본 연구는 개척교회 예배공간에 적합한 강대상 디자인을 개발하고, 제작된 강대상에 대한 교인의 사용자 수용성 경향을 단일 사례 차원에서 탐색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척교회는 제한된 공간 조건, 목회자와 교인의 관계, 예배 의례, 종교적 상징체계, 신앙적 수용이 결합된 맥락특수적 디자인 환경으로 이해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맥락특수적 디자인, 레빈의 장이론, 기호학적 상징 해석을 바탕으로 강대상 디자인을 개발하였다. 디자인 콘셉트는 '절제된 상징적 소통'으로 설정하였으며, 십자가는 강대상의 전면 구조와 중심축으로, 불의 상징은 탄화목재의 표면 질감과 어두운 색채로 전환하였다. 제작과 설치 후 전체 교인 83명 중 설문에 참여한 63명을 대상으로 사용자 수용성 경향 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교인들은 강대상을 동적이고 유연하며 부드럽고 무게감 있는 조형 대상으로 수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십자가의 상징은 비교적 명확하게 수용된 반면, 탄화 표면을 통한 불의 상징은 제한적으로 수용되었다. 본 연구는 맥락특수적 디자인 개발 사례가 공동체 기반 공간에서 맥락 해석, 조형언어 도출, 제작, 설치, 사용자 수용성 경향 분석을 연결하는 디자인 개발 접근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목차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 2-1. 맥락특수적 디자인 프로세스
- 2-2. 레빈의 장이론과 교회공간의 사용자-사용 환경 관계
- 2-3. 기호학적 상징 해석과 강대상 조형언어
- 2-4. 사용자 수용 관점

3. 개척교회 예배공간의 맥락특수성을 고려한 강대상 디자인 개발

- 3-1. 디자인 대상과 맥락 분석
- 3-2. 디자인 콘셉트 정립
- 3-3. 조형언어 도출
- 3-4. 스케치 및 CAD 전개
- 3-5. 재료, 탄화, 제작 및 설치

4. 사용자 수용성 경향 분석

- 4-1. 수용성 경향 조사 설계 및 항목 구성

- 4-2. 조사 대상 및 분석 방법
- 4-3. 조형적 이미지 수용 분석
- 4-4. 상징적 의미 수용 분석
- 4-5. 신앙적 의미 수용 경향 및 집단 간 차이 분석

5. 결론

참고문헌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디자인 대상은 그것이 놓이는 사용환경과 분리되어 이해되기 어렵다. 특히 특정 공동체의 행위, 규범, 상징 체계, 사용자 경험이 결합된 대상은 물리적 기능이나 조형적 완성도만으로 평가되기 어렵다. 이러한 대상은 사용자와 환경 사이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의미로 해석되고 수용되는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복합적 맥락을 포함하는 디자인 문제에서는 대상, 사용자, 환경 사이의 관계를 구조화하고, 이를 디자인 콘셉트와 조형언어로 전환하는 프로세스가 필요하다.¹⁾

교회공간은 이러한 맥락특수성이 강하게 작동하는 공간이다. 교회공간은 예배가 이루어지는 물리적 장소 이면서, 신앙 공동체의 의례, 규범, 상징, 경험이 결합되는 상징적 공간이다. 이 안에서 강대상은 목회자가 설교를 수행하는 기능적 가구인 동시에, 교인이 예배 중 지속적으로 바라보고 의미를 부여하는 시각적 중심물이다. 선행연구에서도 강대상은 단순한 설교대가 아니라 교회공간 안에서 빛, 위치, 형태와 결합하여 종교적 상징성을 형성하는 대상으로 논의되어 왔다.²⁾ 그러므로 강대상 디자인은 목회자의 사용 편의성뿐 아니라, 교인이 그것을 어떻게 지각하고 어떤 종교적 의미로

해석하며 예배 경험 안에서 어떻게 수용하는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대형교회는 비교적 안정된 예배공간, 분화된 강단 구조, 규모화된 음향·조명·시각체계 안에서 강대상이 배치되는 경우가 많다. 반면 개척교회는 제한된 공간 조건 속에서 예배, 교제, 교육, 공동체 형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며, 목회자와 교인 사이의 물리적·심리적 거리가 상대적으로 가깝다. 따라서 개척교회의 강대상은 기존 교회 가구의 축소형으로 계획되되, 작은 예배공간의 밀도, 공동체적 관계, 신앙적 정체성 형성 과정을 함께 고려하는 맥락특수적 디자인 대상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교회공간이 위계와 통제의 구조로 작동할 수 있다는 비판적 논의 역시, 강대상 디자인이 단순한 종교 상징의 반복이 아니라 공간 안의 관계 설정과 함께 검토되어야 함을 시사한다.³⁾

이러한 배경에서 개척교회 강대상은 기존 교회 가구의 축소나 상징 형식의 반복이 아니라, 제한된 예배공간, 목회자-교인 관계, 예배 의례와 종교적 상징체계를 함께 고려한 디자인 대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교회공간의 사용자-사용환경 관계와 종교적 상징체계를 해석하고, 이를 조형언어와 사용자 수용성 경향으로 연결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1) 윤주현, '디자인 협력과 디자인 교육을 위한 맥락적인 시스템 디자인 프로세스', 한국디자인학회, 디자인학연구, Vol.33, No.4, 2020.11, pp.125-127.

2) 김정오, 이재규, '교회공간의 빛과 강대상의 상징성에 관한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Vol.10, No.2, 2015.04, p.20.

3) 박우영, '한국 사회 내 교회 공간 읽기와 공간 구조 균열 만들기: 폭력과 통제의 공간에 대한 기독교윤리학적 고찰',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기독교사회윤리, 제27호, 2013.12, pp.237-274.

1-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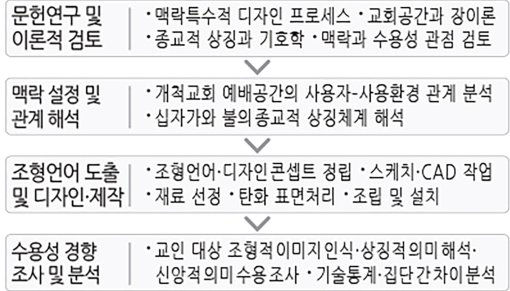
본 연구의 목적은 개척교회 예배공간에 적합한 강대상 디자인을 개발하고, 그 디자인이 교인에게 어떻게 인식·해석·수용되는지를 단일 사례 차원에서 탐색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강대상을 목회자의 기능적 사용 대상인 동시에, 교인이 예배 중 지속적으로 바라보고 의미를 부여하는 상징적 조형 대상으로 파악한다.

연구의 대상은 특정 개척교회 예배공간에 설치할 강대상이다. 연구 범위는 대형교회 강단부나 일반 교회건축 전체가 아니라, 소규모 개척교회 예배공간 안에서 강대상이 갖는 조형적·상징적·수용적 의미로 한정한다. 이는 결과 해석의 주장 수준을 조절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연구 결과 역시 모든 교회공간에 일반화하기보다, 맥락특수적 공동체 공간에서 디자인 개발과 사용자 수용성 경향 분석을 연결한 사례로 해석한다.

연구의 관점은 맥락특수적 디자인 프로세스이다. 본 연구에서 맥락특수적 디자인 프로세스는 사용자-사용환경 관계와 종교적 상징체계를 해석하고, 이를 디자인 콘셉트와 조형언어로 전환하는 과정으로 사용된다. 이 과정에서 레빈의 장이론은 교회공간 안에서 목회자, 교인, 예배 의례, 종교적 상징이 형성하는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관점으로 활용하고, 기호학적 상징 해석은 십자가와 불의 종교적 의미를 형태, 재료, 질감, 색채로 전환하기 위한 방법적 근거로 활용한다. 두 관점은 강대상을 공간·상징·사용자의 관계 속에서 해석하기 위한 보완적 틀로 작용한다.

연구 방법은 네 단계로 구성한다. 첫째, 문헌연구를 통해 맥락특수적 디자인 프로세스, 교회공간, 장이론, 종교적 상징, 사용자 수용성 경향 분석에 관한 이론적 근거를 검토한다. 둘째, 개척교회 예배공간을 연구 맥락으로 설정하고, 사용자-사용환경 관계와 십자가·불의 상징 의미를 분석하여 디자인 콘셉트와 조형언어를 도출한다. 셋째, 도출된 조형언어를 바탕으로 스케치, 2D·3D CAD, 재료 선정, 탄화 표면처리, 조립 및 설치 과정을 거쳐 강대상을 제작한다. 넷째, 제작된 강대상을 실제 예배공간에 설치한 뒤 교인을 대상으로 조형적 이미지 인식, 상징적 의미 해석, 신앙적 의미 수용 경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술통계와 집단 간 차이를 중심으로 탐색적으로 분석한다.

이러한 절차는 개척교회 예배공간의 맥락 설정, 사용자-사용환경 관계 해석, 조형언어 도출, 제작·설치, 사용자 수용성 경향 분석으로 이어진다. 연구의 구조 및 절차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의 구조 및 절차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2-1. 맥락특수적 디자인 프로세스

맥락적 디자인은 사용자를 추상적 대상으로 보지 않고, 사용자가 실제로 생활하고 일하며 의미를 형성하는 구체적 상황 속에서 디자인 문제를 이해하려는 접근이다. Beyer와 Holtzblatt는 시스템 디자인의 과제가 사용자의 일상적 삶과 업무 방식 속에 자연스럽게 들어맞는 결과물을 만드는 데 있다고 보았다. 이 관점에서 디자인은 독립된 대상의 형태를 계획하는 행위에 그치지 않으며, 사용자의 기존 행위, 환경, 도구, 관계, 경험을 관찰하고 이를 설계에 반영하는 과정으로 이해된다.⁴⁾

이러한 맥락 중심 관점은 복합적인 디자인 문제에서 더욱 중요하다. 현대의 디자인 대상은 단일 기능이나 독립된 제품 단위로 작동하기보다, 사용자, 환경, 조직, 문화, 상징, 경험이 얹힌 관계 속에서 의미를 형성한다. 따라서 디자인 프로세스는 문제를 선형적으로 해결하는 절차가 아니라, 대상이 놓인 맥락을 해석하고 그 안에서 작동하는 관계를 구조화한 뒤, 이를 구체적인 디자인 방향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윤주현은 복합적 맥락을 포함하는 디자인 문제에서 디자인 프로세스를 구조화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맥락을 판단하는 하향적 과정과 형태를 창조하는 상향적 과정을 연결하는 맥락적 시스템 디자인 프로세스를 제안하였다.⁵⁾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맥락특수적 디자인 프로세스는 이러한 맥락적 디자인 논의를 개척교회 강대상 디자인에 적용한 개념이다. 여기서 ‘맥락특수적’이라는 표현은 모든 디자인 문제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보편

4) Hugh Beyer and Karen Holtzblatt, 『Contextual Design: Defining Customer-Centered Systems』, Morgan Kaufmann Publishers, 1998, p.1.

5) 윤주현, Op. cit. 2020, pp.125-127.

절차를 의미하기보다, 특정 공동체와 사용환경 안에서 형성되는 물리적 조건, 사용자 관계, 의례적 행위, 상징 체계, 경험적 수용을 통합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디자인 상황을 의미한다. 즉 개척교회 강대상은 독립된 예배 가구가 아니라, 제한된 예배공간, 목회자와 교인의 관계, 예배 의례, 십자가와 불의 종교적 상징, 교인의 신앙적 수용 경험 속에서 의미를 갖는 디자인 대상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맥락특수적 디자인 프로세스는 네 가지 방향으로 구성된다. 첫째, 개척교회 예배공간을 사용자-사용환경 관계가 형성되는 구체적 장으로 해석한다. 둘째, 십자가와 불의 종교적 상징체계를 분석하여 디자인 콘셉트와 조형언어의 근거로 전환한다. 셋째, 도출된 조형언어를 형태, 재료, 질감, 색채, 제작 방식으로 구체화하여 강대상 디자인을 개발한다. 넷째, 완성된 강대상을 실제 예배공간에 설치한 뒤, 교인의 인식-해석-수용 양상을 탐색적으로 분석한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 맥락특수적 디자인 프로세스는 이론적 해석, 조형언어 도출, 실물 제작, 사용자 수용성 경향 분석을 연결하는 상위 연구 틀로 기능한다.

2-2. 레빈의 장이론과 교회공간의 사용자-사용환경 관계

레빈의 장이론은 인간의 행동을 개인의 내적 속성만으로 설명하지 않고, 개인과 환경 사이의 상호관계 속에서 이해하려는 사회심리학적 관점이다. 레빈은 인간 행동을 개인과 심리적 환경의 함수관계로 보고, 이를 $B=f(P,E)$ 로 설명하였다.⁶⁾ 여기서 B는 행동, P는 개인, E는 환경을 의미한다. 이 관점에서 환경은 단순한 물리적 배경이 아니라 개인의 지각, 신념, 가치, 목표와 결합하여 행동을 형성하는 심리적 장이다.⁷⁾

장이론에서 중요한 개념은 생활공간이다. 생활공간은 특정 시점에서 개인의 행동을 결정하는 사실들의 총체이며, 개인과 그가 지각하는 심리적 환경을 포함한다.⁸⁾ 따라서 개인과 환경은 분리된 요소가 아니라 상호의존적으로 작동하는 관계적 구조로 이해된다. 개인은 환경의 영향을 받는 동시에 환경을 해석하고 반응하는 주체이며, 환경 역시 개인과 집단의 행위에 의해

의미가 재구성된다. 이러한 관점은 디자인 대상이 놓이는 공간을 단순한 배치 조건이 아니라 사용자 인식과 수용을 형성하는 심리적-관계적 맥락으로 해석하게 한다.⁹⁾

본 연구에서 교회공간은 레빈의 장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 맥락특수적 생활공간으로 이해된다. 교회공간은 예배가 이루어지는 물리적 장소인 동시에, 목회자, 교인, 예배 의례, 공동체 규범, 종교적 상징이 상호작용하는 장이다.¹⁰⁾ 교인은 교회공간 안에서 단순한 관람자가 아니라 예배 의례에 참여하고, 설교를 듣고, 상징을 해석하며, 공동체적 신앙 경험을 형성하는 사용자이다. 따라서 교인의 경험은 개인의 신앙심만으로 설명되기보다, 예배공간의 배치, 강대상의 위치와 형태, 목회자와의 거리, 회중석과 강단의 관계, 종교적 상징체계가 함께 작용하는 생활공간 안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강대상은 목회자가 사용하는 기능적 가구이면서, 동시에 교인이 예배 중 지속적으로 바라보고 의미를 부여하는 상징적 조형 대상이다. 강대상은 목회자와 교인 사이에 위치하여 말씀 전달, 예배 행위, 시각적 집중, 상징적 해석을 매개한다. 특히 개척교회와 같이 공간 규모가 작고 공동체적 관계가 밀접한 환경에서는 강대상의 형태, 재료, 질감, 색채가 회중과의 심리적 거리감과 예배공간의 분위기에 직접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레빈의 장이론은 강대상 디자인의 효과를 인과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실험모형이 아니라, 개척교회 예배공간에서 사용자-사용환경 관계를 해석하고, 교인을 경험적 사용자로 설정하기 위한 이론적 관점으로 활용된다.

2-3. 기호학적 상징 해석과 강대상 조형언어

기호학적 관점에서 디자인 대상은 단순한 물리적 형상이 아니라 특정 의미를 전달하고 해석하게 하는 기호체계로 이해될 수 있다. 소쉬르는 기호를 감각적으로 지각되는 기표와 개념적 의미인 기의의 결합으로 설명하였다.¹¹⁾ 이러한 관점에서 형태, 재료, 질감, 색채는 단순한 조형 요소가 아니라 특정한 의미를 담고 전달하는 시각적 기표로 작동한다. 특히 종교공간에서 상징은 공동체가 공유하는 신앙, 의례, 기억, 가치와 결합되

6) 쿠르트 레빈, 박재호 역, 『사회과학에서의 장이론』, 민음사, 1987, pp.86-89.

7) 양창삼, '쿠르트 레빈의 생애와 사상', 한양대학교 반월캠퍼스, 밑물, 제3호, 1985, pp.66-72.

8) 박병기, '장이론의 발전과정 및 내용이 교육학에 던지는 도전적 과제들', 한국교육원리학회, 교육원리연구, Vol.8, No.1, 2003.03, p.175.

9) Ibid., p.175.

10) 이정구, '좋은 교회 공간', 새가정사, 새가정, 제68권, 2021.09, p.18.

11) Ferdinand de Saussure, 『Course in General Linguistics』, Open Court, 1983, pp.65-70.

어 해석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장식 요소와 구분된다.

교회공간에서 강대상은 이러한 상징 작용이 집중되는 조형 대상이다.¹²⁾ 강대상은 목회자의 설교 행위를 지원하는 기능적 가구이지만, 동시에 회중이 예배 중 지속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적 중심물이다. 따라서 강대상 디자인에서 형태와 재료는 사용 편의성이나 구조적 안정성만이 아니라, 예배공간 안에서 어떤 의미를 생성하고 전달하는가의 문제와 연결된다.

본 연구에서 강대상 조형언어의 주요 상징체계는 십자가와 불이다. 십자가는 그리스도교에서 고난, 죽음, 구원, 부활을 함축하는 대표적 상징이다.¹³⁾ 십자가는 본래 처형의 도구였으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신앙을 통해 구원과 희망의 상징으로 전환되었다. 관련 연구에서도 십자가는 고난과 죽음, 부활과 승리의 의미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핵심 상징으로 다루어지며, 재료, 중첩된 구조, 중심성, 질감, 색채 등을 통해 조형적 의미가 강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¹⁴⁾ 따라서 본 연구에서 십자가는 강대상의 형태적 구조와 시각적 중심성을 형성하는 핵심 기표로 설정된다.

불은 십자가와 함께 본 연구의 또 다른 상징적 근거가 된다. 불은 빛, 생명, 정화, 성령의 의미를 지니는 동시에, 소멸, 심판, 죽음의 의미를 함께 내포한다.¹⁵⁾ 이처럼 불은 단일한 긍정적 상징이라기보다 생명과 죽음, 정화와 소멸이 공존하는 양가적 상징으로 이해될 수 있다.¹⁶⁾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불의 의미를 직접적인 화염 이미지로 표현하기보다, 목재 표면의 탄화, 거친 질감, 어두운 색조, 재료의 변형 흔적을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내고자 한다. 이는 종교적 상징을 설명적으로 재현하기보다, 교인이 예배공간 안에서 조형적 단서와 신앙적 의미를 연결하여 해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에 본 연구의 기호학적 상징 해석은 십자가와 불의 의미를 그대로 도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강대상의 조형언어로 전환하는 과정으로 이해된다. 십자가

는 형태와 구조의 차원에서, 불은 재료와 질감 및 색채의 차원에서 작동하며, 두 상징은 개척교회 예배공간 안에서 절제된 상징적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디자인 근거가 된다. 이러한 상징 해석의 적용 구조는 [표 1]과 같다.

[표 1] 종교적 상징의 조형언어 전환 구조

상징체계	주요 의미	조형적 기표	조형언어 적용
십자가	고난, 죽음, 구원, 부활	교차 구조, 중심성, 수직·수평 방향성	강대상의 기본 형태와 시각적 중심 구조
불	생명, 정화, 성령, 소멸, 심판	탄화 표면, 어두운 색조, 거친 질감, 변형 흔적	목재 탄화와 표면 질감을 통한 양가적 의미 표현
강대상	말씀 전달, 예배 중심, 목회자·교인 매개	위치, 비례, 전면성, 재료감	개척교회 예배 공간의 상징적 조형 대상
조형언어	의미의 시각적 전환	형태, 재료, 질감, 색채	절제된 상징적 소통을 위한 디자인 구성 원리

2-4. 사용자 수용 관점

맥락특수적 디자인 프로세스에서 사용자 수용 관점은 완성된 결과물의 기능적 적합성만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 디자인이 실제 사용 맥락 안에서 사용자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해석되며 받아들여지는지를 살펴보는 관점이다. 특히 공동체, 의례, 상징, 경험이 결합된 디자인 대상은 물리적 사용성만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최근 디자인 주도 평가 논의에서도 공공서비스나 복합적 서비스 생태계는 기존의 품질·만족도 중심 평가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이해관계자 참여와 시스템적 관점을 포함한 평가틀이 필요하다고 논의된다.¹⁷⁾ 이러한 관점은 본 연구에서 강대상 디자인을 단순한 예배 가구의 완성도 확인에 그치지 않고, 개척교회 예배공간 안에서 교인이 조형적·상징적·신앙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를 살펴보는 사용자 수용성 경향 분석으로 설정하는 근거가 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자’는 강대상을 직접 조작하거나 사용하는 목회자에 한정되지 않는다. 강대상은 목회자의 설교 행위를 지원하는 기능적 대상이지만, 동시에

12) 김정오, 이재규, Op. cit. 2015, p.20.

13) 임세실리아,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표현연구’, 한국꽃예술학회, 한국꽃예술학회지, No.18, 2012. 12, pp.254-258.

14) Ibid., pp.263-265.

15) 김수현, ‘불의 상징에 대한 연구’, 한국모래놀이치료학회, 모래놀이상담연구, Vol.16, No.1, 2020.05, pp.21-23.

16) Ibid., p.22.

17) Ahmee Kim and Hyung Jun Park, ‘Developing a design-led evaluation model for citizen-centered public services: a South Korean case’, Policy Design and Practice, Vol.8, No.4, Taylor & Francis, 2025.07, p.2.

교인이 예배 중 지속적으로 바라보고 의미를 부여하는 시각적·상징적 대상이다. 따라서 교인은 강대상의 직접 조작 사용자는 아니지만, 예배공간 안에서 강대상을 지각하고 해석하며 신앙적 의미로 받아들이는 경험적 사용자로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은 일반 제품디자인에서 중시되는 조작성, 효율성, 편의성보다 조형 이미지의 인식, 종교적 상징의 해석, 신앙적 의미의 수용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의 사용자 수용 관점은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된다. 첫째, 조형적 이미지 인식은 강대상의 형태, 비례, 질감, 색채가 교인에게 어떤 시각적 인상으로 지각되는지를 확인하는 차원이다. 디자인 평가 연구에서는 사용자가 제품이나 가구 디자인을 지각할 때 감성어휘나 의미분별척도를 통해 조형적 인상과 평가 기준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아 왔다.¹⁸⁾ 둘째, 상징적 의미 해석은 강대상에 적용된 십자가와 불의 상징이 교인에게 어느 정도 해석 가능한 의미로 전달되는지를 확인하는 차원이다. 셋째, 신앙적 의미 수용은 강대상이 예배공간 안에서 공동체의 신앙 경험과 정서적 몰입에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여지는지를 확인하는 차원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사용자 수용성 경향 분석은 완성된 강대상이 교인에게 미치는 효과를 포괄적으로 검증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는 단일 개척교회 예배공간이라는 제한된 맥락 안에서, 강대상 디자인이 조형적 이미지, 상징적 의미, 신앙적 의미의 차원에서 어떻게 수용되는지를 탐색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수용 관점은 앞서 제시한 맥락특수적 디자인 프로세스의 마지막 단계로서, 디자인 개발 과정에서 도출된 조형언어가 실제 예배공간의 사용자 수용 맥락 안에서 어느 정도 해석되고 수용되는지를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구분은 이후 사용자 수용성 경향 조사 항목 구성과 결과 해석의 기준이 된다. 이를 종합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사용자 수용 관점과 수용 차원

수용 차원	수용 내용	분석 목적
조형적 이미지 인식	형태, 비례, 질감, 색채에 대한 시각적 인상	강대상이 교인에게 어떤 조형 이미지로 지각되는지 확인
상징적 의미 해석	십자가와 불의 상징 의미 해석 정도	종교적 상징이 조형언어를 통해 전달되는지 확인
신앙적 의미 수용	예배공간 안에서의 신앙적·정서적 수용	강대상이 공동체의 예배 경험 안에서 어떻게 받아들

18) 한명흠, '가구디자인에 관한 감성평가연구: 접이식 의자를 중심으로',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Vol.30, No.3, 2021.06, p.38.

3. 개척교회 예배공간의 맥락특수성을 고려한 강대상 디자인 개발

본 장에서는 앞서 고찰한 맥락특수적 디자인 프로세스를 개척교회 강대상 디자인 개발에 적용하였다. 이를 위해 개척교회 예배공간을 연구 맥락으로 설정하고, 사용자·사용환경 관계와 종교적 상징체계를 해석한 뒤, 이를 디자인 콘셉트와 조형언어로 전환하였다. 이후 스케치 및 2D·3D CAD 전개, 재료 선정, 탄화 표면처리, 제작 및 설치의 순서로 개발 연구를 수행하였다.

3-1. 디자인 대상과 맥락 분석

본 연구의 디자인 대상은 개척교회 예배공간에 설치할 강대상이다. 강대상은 목회자가 설교와 예배 진행을 위해 사용하는 기능적 가구이지만, 교회공간 안에서는 예배의 시각적 중심을 형성하고 말씀 선포의 상징적 위치를 드러내는 조형 대상이기도 하다. 특히 개척교회 예배공간에서는 제한된 공간 안에서 예배, 교제, 교육, 공동체 형성이 밀접하게 이루어지고, 목회자와 교인 사이의 물리적·심리적 거리가 상대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강대상이 차지하는 시각적·상징적 비중이 크다.

대상 교회는 소규모 예배공간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개척교회로, 강대상이 회중의 시선이 집중되는 전면부에 배치되는 구조를 갖는다. 이러한 공간에서는 강대상의 크기, 높이, 전면 형태, 재료감, 표면 질감, 색채가 예배공간 전체의 분위기과 교인의 시각적 경험에 밀접하게 연결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강대상을 단순히 성경책이나 설교문을 올려놓는 설교대가 아니라, 개척교회 공동체의 신앙적 정체성과 예배 경험을 매개하는 상징적 조형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맥락 분석은 대상 교회의 예배공간 현장 확인, 강대상 설치 위치 검토, 목회자의 설교 행위에 필요한 높이와 수납 조건 검토, 회중석에서의 시야와 거리 검토를 바탕으로 수행하였다. 이는 정량적 사전조사가 아니라 디자인 개발을 위한 현장 요구 확인과 사용 맥락 분석에 해당하며, 교인의 사용자 수용성 경향은 제작·설치 이후 설문조사를 통해 탐색적으로 확인하였다.

맥락 분석은 물리적 맥락, 사용자 맥락, 의례적 맥락, 상징적 맥락, 제작 맥락의 다섯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물리적 맥락에서는 예배공간의 규모, 강단부의 제

한성, 회중석과 강대상의 거리, 시야 확보, 설치 위치를 검토하였다. 사용자 맥락에서는 목회자의 설교 행위와 교인의 예배 참여 경험을 구분하여 보았으며, 목회자는 기능적 사용자, 교인은 조형적·상징적 의미를 해석하는 경험적 사용자로 설정하였다. 의례적 맥락에서는 설교, 기도, 찬양, 공동체 예배가 이루어지는 중심 공간으로서 강대상의 위치를 고려하였다. 상징적 맥락에서는 십자가와 불의 종교적 의미, 개척교회 공동체의 신앙적 정체성, 권위적 형식의 절제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제작 맥락에서는 목재 가공, 탄화 표면처리, 조립 안정성, 실제 예배공간 설치 가능성을 고려하였다.

이러한 분석에 따라 강대상 디자인의 조건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강대상은 개척교회 예배공간의 규모에 적합한 비례와 크기를 가져야 한다. 둘째, 목회자의 설교 행위를 지원할 수 있는 기능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교인이 예배 중 시각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전면성과 상징성을 갖추어야 한다. 넷째, 십자가와 불의 의미를 직접적 도상으로 과잉 표현하기보다 형태, 재료, 질감, 색채를 통해 절제된 방식으로 전달해야 한다. 다섯째, 실제 제작과 설치가 가능한 구조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디자인 대상과 맥락 분석은 [표 3]과 같다.

[표 3] 디자인 대상과 맥락 분석

영역	분석 내용	디자인 반영 방향
물리적 맥락	소규모 예배공간, 제한된 강단부, 회중석과 강대상의 가까운 거리	공간 규모에 적합한 비례, 시야 확보, 설치 안정성 고려
사용자 맥락	목회자의 설교 행위와 교인의 예배 참여 경험이 동시에 작동	목회자의 기능적 사용성과 교인의 시각적·상징적 수용성 함께 고려
의례적 맥락	설교, 기도, 찬양, 공동체 예배가 이루어지는 중심 공간	예배의 집중성과 엄숙성을 유지하는 전면성 확보
상징적 맥락	십자가와 불의 종교적 의미, 개척교회 공동체의 신앙 정체성	형태, 재료, 질감, 색채를 통한 절제된 상징 표현
제작 맥락	실물 제작과 설치가 가능한 구조, 목재 가공과 탄화 표면처리 필요	목재 구조, 탄화 처리, 조립 안정성, 현장 설치성 고려

위 분석을 종합하면, 본 연구의 강대상은 기능적 설교대, 예배공간의 시각적 중심물, 종교적 상징체, 공동체적 수용 대상이라는 복합적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이후 디자인 개발은 일반적인 교회 가구의 형태를 축소하거나 반복하는 방식이 아니라, 개척교회라는 맥락 특수적 조건을 디자인 콘셉트와 조형언어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3-2. 디자인 콘셉트 정립

본 연구의 강대상 디자인 콘셉트는 앞서 분석한 개척교회 예배공간의 맥락특수성과 교인 중심의 경험적 사용자 관점을 바탕으로 정립하였다. 강대상은 목회자의 설교 행위를 지원하는 기능적 가구이면서, 교인이 예배 중 지속적으로 바라보고 신앙적 의미를 부여하는 조형적 매개체이므로 기능적 안정성과 상징적 조형성을 함께 지녀야 한다.

개척교회 강대상 디자인의 핵심 조건은 상징성과 권위성의 균형이다. 강대상은 교회공간의 전면 중심에 위치하므로 시각적 집중성과 종교적 상징성을 가져야 한다. 기존 강대상 디자인은 수직적 형태와 밝은 원목, 투명 아크릴 등의 재료를 통해 권위적 인상을 형성해 온 경향이 있다.¹⁹⁾ 그러나 제한된 예배공간에서 장식적·권위적 형식이 과도하면 목회자와 교인 사이의 심리적 거리감을 높이고 공동체의 친밀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강대상을 권위적 상징물보다, 신앙적 정체성과 교인의 수용 가능성을 고려한 조형적 매개체로 설정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종교적 상징성은 유지하되 권위적 거리감은 완화해야 한다는 조건을 ‘절제된 상징적 소통’이라는 디자인 콘셉트로 구체화하였다. 여기서 절제는 종교적 상징을 과시적으로 드러내지 않으려는 조형적 태도이며, 상징적 소통은 강대상이 말씀과 신앙 경험을 매개하는 기능을 의미한다. 이로써 강대상은 설교를 위한 도구를 넘어, 교인이 조형과 신앙적 의미를 함께 읽어내는 매개체로 위치하게 된다.

이 콘셉트는 십자가와 불의 상징을 직접적 도상이나 설명적 장식으로 재현하기보다, 교인이 예배공간에서 감각적으로 지각하고 신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조형적 단서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둔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강대상 디자인은 상징을 명시적으로 강조하기보다, 개척교회의 공간적 밀도와 공동체적 관계 안에서 의미가 읽히도록 하는 방향을 지향하였다.

‘절제된 상징적 소통’은 개척교회의 공간 조건, 사용자 관계, 종교적 상징체계, 권위적 형식의 절제, 감각적 조형언어의 가능성을 통합하는 상위 콘셉트이다. 디자인 콘셉트의 정립 구조는 [표 4]와 같다.

19) 김정오, ‘교회공간의 빛과 강대상의 상징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디자인콘텐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p.24.

[표 4] 디자인 콘셉트 정립 구조

도출 근거	맥락 해석	디자인 반영 방향
맥락특수적 디자인 프로세스	개척교회 강대상을 사용자, 사용환경, 상징체계, 경험적 수용이 결합된 디자인 대상으로 해석	물리적 조건, 사용자 관계, 종교적 상징, 제작 가능성을 통한 디자인 방향 설정
사용자-사용환경 관계	목회자는 기능적 사용자, 교인은 예배 중 강대상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경험적 사용자로 설정	설교 기능성과 교인 중심의 시각적-상징적 수용성 동시 고려
레빈의 장이론	교회공간을 목회자, 교인, 예배 의례, 공동체 규범, 종교적 상징이 상호작용하는 장으로 해석	강대상을 교회공간 안의 관계적-상징적 매개체로 설정
기호학적 상징 해석	십자가와 불의 종교적 의미를 강대상의 조형적 의미 형성 근거로 해석	종교적 상징을 직접 재현하기보다 해석 가능한 조형적 단서로 전환
권위적 형식의 절제	제한된 예배공간에서 과도한 장식과 권위적 형식은 심리적 거리감을 형성할 수 있음	개척교회 공동체의 친밀성과 예배의 집중성을 함께 고려한 조형 태도 설정
종합 콘셉트	교회공간의 상징성, 목회자와 교인의 관계, 교인의 신앙적 수용 가능성 통합	절제된 상징적 소통

이와 같이 본 연구의 디자인 콘셉트는 개척교회 강대상을 단순한 예배 가구가 아니라, 교회공간 안에서 사용자 관계와 종교적 상징을 매개하는 조형 대상으로 설정하는 데서 출발한다. 이후 조형언어 도출 단계에서는 이 콘셉트를 바탕으로 십자가와 불의 상징이 구체적인 조형 요소로 전환되는 과정을 제시한다.

3-3. 조형언어 도출

앞서 정립한 ‘절제된 상징적 소통’을 강대상의 형태, 재료, 질감, 색채로 구체화하였다. 십자가와 불은 장식 모티프가 아니라 개척교회 예배공간에서 교인이 신앙적 의미를 읽어낼 수 있는 조형적 단서로 활용하였다. 이에 따라 십자가는 형태와 구조의 근거로 삼고, 불은 재료의 표면 변화와 질감 표현의 근거로 삼았다.

형태에서는 십자가의 수직-수평 구조를 기본으로 하였다. 다만 정형화된 십자가 도상을 그대로 반복하지 않았다. 후면 벽면 십자가와 시각적으로 중첩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십자가의 구조는 강대상의 전면성과 중심성을 형성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또한 강한 수직성이 권위적 인상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전면부의 비례와 매스감을 조정하고, 이후 스케치 단계에서 완만한 곡률을 부여할 수 있도록 형태 방향을 설정하였다.

재료는 목재를 기본 조형 매체로 선택하였다. 목재

는 표면의 결, 색의 깊이, 가공 흔적이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나는 재료이므로, 강대상이 예배공간 안에서 지나치게 차갑거나 인공적인 오브제로 지각되는 것을 완화할 수 있다. 또한 목재는 절단, 접합, 연마, 탄화 등 제작 과정의 흔적을 표면에 남길 수 있어, 종교적 상징을 직접 설명하지 않고도 재료 자체를 통해 의미를 암시할 수 있다. 따라서 목재를 구조재이자 십자가의 형태적 상징과 불의 감각적 상징을 연결하는 매개 재료로 활용하였다.

질감에서는 불의 상징을 직접적인 화염 이미지로 표현하지 않았다. 대신 목재 표면을 탄화하여 불이 지나간 흔적을 남기고, 목리 방향을 따라 연마하여 표면의 요철과 거친 결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탄화 질감은 불의 소멸성, 정화성, 재생 가능성을 재료의 변형 흔적으로 보여주는 요소이다. 이를 통해 불의 의미를 설명적 이미지가 아니라 표면의 물성과 감각적 인상으로 전달하고자 하였다.

색채는 탄화목재가 형성하는 검정-군청 계열의 어두운 색조를 중심으로 계획하였다. 어두운 색채는 예배공간에 시각적 무게감과 엄숙성을 부여하며, 탄화 표면의 목리와 명암을 통해 깊이감을 형성한다. 색채를 별도의 장식적 채색으로 처리하지 않고, 탄화와 연마 과정에서 나타나는 재료의 표면 변화로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불의 흔적, 죽음과 생명의 양가성, 예배공간의 긴장감과 집중성을 함께 드러내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십자가의 구조, 목재의 물성, 탄화 질감, 어두운 색조를 결합하여 강대상의 조형언어를 도출하였다. 각 요소는 독립된 장식 요소가 아니라, ‘절제된 상징적 소통’이라는 콘셉트 안에서 상호 연결된다. 조형언어 도출의 핵심은 종교적 상징을 직접 재현하는 데 있지 않고, 교인이 예배공간 안에서 형태와 물성을 통해 신앙적 의미를 읽어낼 수 있도록 조형적 단서를 부여하는 데 있다. 기호학적 상징 해석에 따른 조형언어 도출은 [표 5]와 같다.

[표 5] 기호학적 상징 해석에 따른 조형언어 도출

조형 요소	의미적 근거	조형언어 도출	디자인 적용 방향
형태	십자가의 고난, 구원, 부활, 중심성	수직-수평 구조, 전면성, 중심축	십자가의 직관성은 유지하되, 권위적 도상 반복을 피하는 형태 구조
재료	재료의 물성, 제작 흔적, 불의 흔적 수용 가능성	목재, 가공 가능한 구조재, 탄화 가능한 표면	구조재이자 종교적 의미를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매개 재료

질감	소멸, 재생, 흔적	정화, 불의	탄화 표면, 리, 표면 철, 거친 결	목 요	불의 의미를 직접 이미지가 아니라 재료의 변형 흔적으로 표현
색채	엄숙성, 깊이 감, 상징적 긴장		검정 군청 계 열의 어두운 색조		예배공간의 집중성과 시각적 무게감을 형성
종합	절제된 상징적 소통	상징	형태, 질감, 통합	재료, 색채의	종교적 상징을 과잉 장식적이 아닌 해석 가능한 조형의 미로 전환

3-4. 스케치 및 CAD 전개

앞서 도출한 조형언어는 스케치 단계에서 십자가의 구조, 곡선형 매스, 전면의 중심성, 목재 질감의 표현 방향으로 구체화하였다. 초기 스케치에서는 수직축과 수평축이 교차하는 십자가의 기본 구조를 강대상의 전면 형상으로 설정하였다. 이후 십자가 형상이 후면 벽면 십자와 단순히 중첩되지 않도록, 전면부에 부피감을 부여하고 측면에는 완만한 곡률을 적용하였다.

스케치 전개에서는 직선적인 십자가 형상만을 강조하지 않았다. 전면 매스의 곡면, 상부의 수평 구조, 하부의 안정감을 함께 조정하여 강대상이 예배공간 안에서 독립된 조형 오브제로 인식되도록 하였다. 또한 목재의 결, 탄화 표면, 어두운 색조가 이후 제작 단계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표면 표현 방향을 함께 검토하였다. 디자인 스케치 및 조형 전개는 그림 2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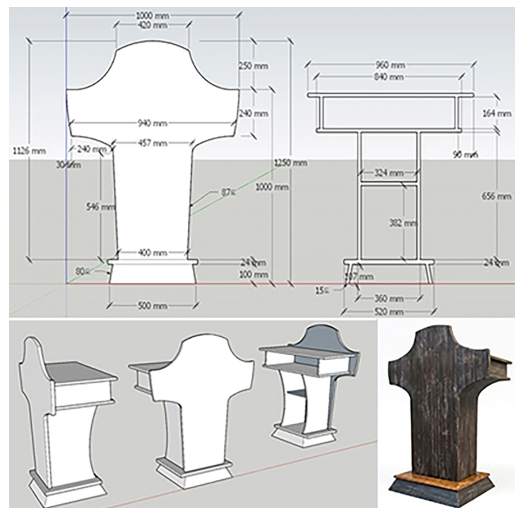


[그림 2] 강대상 디자인 스케치 및 조형 전개

스케치를 통해 정리한 조형안은 2D CAD 도면과 3D 모델링으로 구체화하였다. 2D CAD에서는 정면, 측면, 평면을 기준으로 강대상의 전체 비례와 세부 치수를 검토하였다. 설교자가 성경책과 원고를 확인하고 예배를 진행할 수 있도록 후면 원고대의 높이는 1,000mm로 설정하였으며, 강대상의 폭은 960mm로 계획하였다. 전면 매스가 가장 돌출된 지점을 기준으로 한 강대상의 전체 높이는 1,126mm로 설정하여, 설교자의 사용성과 회중석에서의 시각적 인지성을 함께 고려하였다.

3D 모델링에서는 평면 도면에서 확인하기 어려움

매스의 깊이, 곡면의 정도, 전면부의 시각적 무게감, 회중석 방향에서의 인지 방식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스케치에서 설정한 십자가의 구조적 상징성과 곡면 매스가 실제 공간 안에서 어떻게 지각되는지를 확인하고, 제작 단계에서 구현 가능한 형태와 구조로 조정하였다. 특히 강대상의 전면성과 상징성을 유지하면서도, 소규모 예배공간에서 과도한 권위감이나 압박감으로 지각되지 않도록 전체 비례와 곡률을 조정하였다. 2D CAD 및 3D 모델링과 렌더링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 2D CAD 및 3D 모델링/렌더링

3-5. 재료, 탄화, 제작 및 설치

강대상의 주요 재료로는 두께 18~20mm의 소나무 집성목을 선택하였다. 소나무 집성목은 목리와 나이테가 비교적 뚜렷하여 탄화 후 표면의 명암과 질감을 드러내기에는 적합하였다. 탄화 과정에서 집성목의 접합부가 갈라질 수 있으므로, 부재별 재단면을 정리하고 트리머와 샌딩 작업으로 표면을 먼저 정돈하였다. 이를 통해 목재의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탄화 후 목리 표현이 균일하게 드러나도록 하였다.

가공은 2D CAD 도면을 기준으로 진행하였다. 주요 부재는 띠톱과 NC 가공기로 절단하였으며, 전면부 곡면 부재는 직소로 형상을 따낸 뒤 가장자리 테두리를 트리머로 둥글게 처리하였다. 이 과정에서 십자가의 전면성, 부피감, 완만한 곡률을 실제 형태로 구현하였다. 내측에는 성경책과 예배 진행에 필요한 물품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고, 하부에는 강대상과 바닥이 안정적으로 맞물리도록 방사형으로 확장되는 사각 하부

프레임을 적용하였다.



[그림 4] 가공, 가조립 및 탄화 표면처리 과정

탄화 표면처리는 불의 상징을 재료의 표면 변화로 드러내기 위해 적용하였다. 목재 표면에 약 160℃에서 230℃ 사이의 열을 가하고, 태워진 목재 결을 따라 철술로 연마하였다. 탄화된 표면은 단순한 검은색 마감이나, 불이 지나간 흔적과 목재의 결을 동시에 드러낸다. 열에 의해 표면은 소멸되지만, 연마 후에는 목리의 명암과 요철이 더욱 선명하게 나타난다. 이를 통해 죽음과 생명, 소멸과 재생이라는 불의 양가적 의미를 강대상의 질감과 색채에 부여하였다.

탄화와 연마는 세 차례 조정하였다. 1차 탄화에서는 겉면만 타서 목리와 결의 대비가 약하게 나타났다. 2차 탄화에서는 철술 작업 후 목리와 결이 드러났으나, 표면 명암의 깊이는 충분하지 않았다. 3차 탄화에서는 철술 연마 후에도 목리의 명암이 뚜렷하게 유지되어 최종 표면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탄화 단계에 따른 목리 변화는 [표 6]과 같다.

[표 6] 탄화 단계에 따른 목리 변화 분석

단계	상판	단면
1차		
겉면만 타서 목리와 결이 약함		
2차		

	철술 작업에도 목리와 결이 나타남
3차	
	철술 후에도 목리의 명암이 뚜렷함

탄화와 연마를 마친 뒤에는 천연 오일로 표면을 마감하였다. 최종 강대상은 검정·군청 계열의 어두운 색조와 목리의 명암이 함께 드러나는 표면을 갖게 되었다. 십자가의 형태적 상징, 탄화목재의 질감, 불의 흔적, 예배공간의 엄숙성을 결합하여 말씀의 전달과 신앙적 의미를 매개하는 강대상으로 완성하였다.

완성된 강대상은 개척교회 예배공간에 설치하였다. 대상 교회는 협소한 강단부 조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강대상은 회중석과 동일한 바닥 레벨에 배치하였다. 후면 벽면의 십자가가 직선적이고 평면적인 상징체로 배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강대상은 부피감 있는 전면 매스, 완만한 곡면, 탄화된 표면 질감을 통해 별도의 조형적 존재감을 형성하도록 계획하였다. 또한 내부 수납공간을 통해 설교대로서의 기본 사용성을 확보하면서도, 전면에서는 십자가 구조와 탄화목재의 표면 질감을 통해 불의 상징성이 드러나도록 구성하였다. 완성된 강대상, 내부 수납공간 및 예배공간 설치 모습은 [그림 5]와 같다.



[그림 5] 완성된 강대상. 내부 수납공간 및 예배공간 설치

4. 사용자 수용성 경향 분석

본 장에서는 제작된 강대상 디자인이 교인에게 어떻게 인식·해석·수용되는지를 단일 사례 차원에서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자 수용성은 강대상의 조작성이나 기능적 편의성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교인이 예배공간 안에서 강대상의 조형적 이미지, 종교적 상징, 신앙적 의미를 어떻게 인식하고 해석하며 받아들이는지를 의미한다. 따라서 본 장의 분석은 목회자의 설교대 사용성

이나 기존 강대상과의 비교효과를 검증하기보다, 강대상을 지속적으로 바라보고 의미를 부여하는 교인을 대상으로 한 사용자 수용성 경향 분석에 초점을 둔다.

4-1. 수용성 경향 조사 설계 및 항목 구성

본 연구의 사용자 수용성 경향 조사는 3장에서 개발·제작한 강대상이 실제 개척교회 예배공간 안에서 교인에게 어떻게 인식·해석·수용되는지를 탐색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설계하였다. 이에 따라 조사 항목은 디자인 콘셉트인 ‘절제된 상징적 소통’과 3장에서 도출한 조형언어를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절제된 상징적 소통’은 강대상이 목회자와 교인, 말씀과 수용, 종교적 상징과 신앙적 의미를 매개하는 조형적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형태, 비례, 곡률, 매스감, 재료, 질감, 색채는 교인이 강대상을 조형적으로 인식하고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주요 단서가 된다. 이에 따라 사용자 수용성 경향 조사는 조형적 이미지 수용, 상징적 의미 수용, 신앙적 의미 수용의 세 차원으로 구성하였다.

첫째, 조형적 이미지 수용은 강대상의 형태, 비례, 곡률, 매스감, 질감, 색채가 교인에게 어떠한 조형적 인상으로 받아들여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를 위해 정적인/동적인, 경직된/유연한, 권위적인/관용적인, 무딘/날카로운, 딱딱한/부드러운, 매끄러운/거친, 가벼운/무거운, 친근한/두려운, 기쁜/우울한의 9개 형용사 쌍을 사용하고, 7점 의미분별척도로 측정하였다.²⁰⁾

둘째, 상징적 의미 수용은 강대상 디자인에 적용된 십자가와 불의 종교적 상징이 교인에게 어느 정도 의미 있게 해석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다. 십자가 상징은 고난과 구원의 의미가 느껴지는 정도로 측정하였고, 불의 상징은 탄화 표면이 죽음과 생명의 양가성을 내포한다고 해석되는 정도로 측정하였다. 두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다.

셋째, 신앙적 의미 수용은 강대상 디자인이 예배공간 안에서 교인의 신앙적 의미 형성과 수용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는 강대상이 단순한 설교대나 조형물이 아니라, 예배 참여 과정에서 신앙적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항

목이며,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다만 상징적 의미 수용과 신앙적 의미 수용 문항은 표준화된 다문항 척도를 구성한 것이 아니라, 본 연구에서 도출한 조형언어가 교인에게 어떠한 방향으로 해석되고 받아들여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탐색적 확인 문항으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해당 문항을 일반화 가능한 측정척도로 제안하기보다, 단일 사례에서 조형언어와 사용자 수용성 경향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사용자 수용성 경향 조사의 세부 항목은 [표 7]과 같다. 이후 분석에서는 조형적 이미지 수용, 상징적 의미 수용, 신앙적 의미 수용의 세 차원에 따라 강대상 디자인에 대한 교인의 사용자 수용성 경향을 해석하였다.

[표 7] 사용자 수용성 경향 조사 항목

조사 차원	조사 의미	세부 문항	척도
인적 사항	응답자 특성 파악	성별, 연령, 신앙생활 기간	명목·서술형
조형적 이미지 수용	형태, 비례, 곡률, 매스감, 질감, 색채에 대한 조형적 수용 정도	정적인/동적인, 경직된/유연한, 권위적인/관용적인, 무딘/날카로운, 딱딱한/부드러운, 매끄러운/거친, 가벼운/무거운, 친근한/두려운, 기쁜/우울한	7점 의미 분별 척도
상징적 의미 수용	십자가와 불의 종교적 상징에 대한 의미 수용 정도	십자가 형상에서 고난과 구원의 의미가 느껴지는 정도, 탄화 표면이 죽음과 생명의 양가성을 내포한다고 해석되는 정도	5점 리커트 척도
신앙적 의미 수용	강대상 디자인이 예배공간 안에서 신앙적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정도	강대상 디자인이 예배 참여 과정에서 신앙적 의미로 수용되는 정도	5점 리커트 척도

4-2. 조사 대상 및 분석 방법

설문은 2025년 9월 1일부터 9월 16일까지 해당 개척교회의 교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대상 교회의 전체 교인은 83명이었으며, 이 중 설문에 참여한 교인은 63명으로 전체 교인의 75.9%에 해당한다. 최종 분석에는 설문 응답이 완료된 63명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응답자는 모두 제작된 강대상이 설치된 예배공간을 실제로 경험한 교인으로 구성되었다.

본 조사는 단일 개척교회 사례에 한정된다는 제한을 가지지만, 전체 교인 83명 중 63명이 참여했다는 점에

20) 정현원, 나건, ‘감성 평가를 위한 감성의 의미 재정립과 어휘 체계에 관한 연구’, 대한인간공학회, 대한인간공학회지, Vol.26, No.3, 2007.08, pp.17-25.

서 대상 교회 내부의 사용자 수용성 경향을 탐색적으로 파악하는 데 적합한 자료로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사용자 수용성 경향 분석은 강대상을 직접 조작하는 기능적 수용성 평가가 아니라, 예배공간 안에서 강대상을 바라보고 조형적·상징적·신앙적 의미를 수용하는 교인 중심의 수용성 경향 조사라는 점에서 조사 대상의 적합성을 갖는다.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8]과 같다. 남성 25명(39.7%), 여성 38명(60.3%)으로 구성되어 여성 응답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연령대는 청년층 28명(44.4%), 중년층 18명(28.6%), 장년층 17명(27.0%)으로 나타나 청년층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신앙생활 기간은 4~7년이 24명(38.1%)으로 가장 많았고, 8~12년 17명(27.0%), 1~3년과 13년 이상이 각각 11명(17.5%)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구성에서는 여성, 청년층, 4~7년 신앙생활 집단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성별, 연령대, 신앙생활 기간의 주요 범주가 모두 포함되어 대상 교회 내부의 수용성 경향을 탐색적으로 파악하는 데 적합한 구성으로 볼 수 있다.

[표 8]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n=63)

변수	구분	인원(명)	비율(%)	누적(%)
성별	남성	25	39.7	39.7
	여성	38	60.3	100.0
연령대	청년층	28	44.4	44.4
	중년층	18	28.6	73.0
	장년층	17	27.0	100.0
신앙 생활 기간	1~3년	11	17.5	17.5
	4~7년	24	38.1	55.6
	8~12년	17	27.0	82.5
	13년 이상	11	17.5	100.0

자료 분석은 SPSS 26.0을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조형적 이미지 수용, 상징적 의미 수용, 신앙적 의미 수용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집단 간 차이는 성별, 연령대, 신앙생활 기간을 기준으로 독립 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이때 연령대는 집단별 사례 수를 고려하여 청년층과 중·장년층으로 재구성하였고, 신앙생활 기간은 응답 분포의 중위수인 7년을 기준으로 7년 이하 집단과 8년 이상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집단 간 차이의 실제적 크기를 확인하기 위해 Cohen's *d*를 함께 산출하였다.

4-3. 조형적 이미지 수용 분석

강대상 디자인에 대한 조형적 이미지 수용 결과는

[표 9]와 같다. 조형적 이미지 수용은 강대상의 형태, 비례, 곡률, 매스감, 질감, 색채가 교인에게 어떠한 조형적 인상으로 받아들여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항목이다. 본 항목은 7점 의미분별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문항의 오른쪽 형용사에 가까운 수용 경향을 의미한다.

[표 9] 조형적 이미지 수용 경향 분석 결과 (n=63)

항목	감성 어휘	M	SD	수용 경향
형태	정적인/동적인	6.43	.68	동적인 이미지로 수용되는 경향
	경직된/유연한	5.83	.90	유연한 이미지로 수용되는 경향
	권위적/관용적	4.12	1.20	중간값에 가까운 수용 경향
질감	무딘/날카로운	4.15	1.18	중간값에 가까운 수용 경향
	딱딱한/부드러운	5.72	.95	부드러운 이미지로 수용되는 경향
	매끄러운/거친	3.02	1.00	과도하게 거친 인상은 아닌 것으로 해석
색채	가벼운/무거운	6.23	.82	무게감 있는 이미지로 수용되는 경향
	친근한/두려운	4.98	1.12	엄숙성과 긴장감을 동반하는 수용 경향
	기쁜/우울한	3.21	1.05	중간값보다 다소 밝은 경사로 해석

분석 결과, 교인들은 강대상 디자인을 전반적으로 동적이고, 유연하며, 부드럽고, 무게감 있는 조형 대상으로 수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정적인/동적인’ 항목은 평균 6.4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십자가의 구조적 상징성을 유지하면서도 전면부의 곡률과 매스감이 정적인 설교대보다 동적인 조형 대상으로 수용되는 경향과 연결된 것으로 해석된다.

‘경직된/유연한’ 항목은 평균 5.83으로 나타났고, ‘딱딱한/부드러운’ 항목은 평균 5.72로 나타났다. 이는 전면부의 완만한 곡률, 둥글게 처리된 모서리, 부피감 있는 매스 조정이 강대상의 경직된 수직성을 완화하고, 교인에게 비교적 유연하고 부드러운 조형 이미지로 수용되었음을 보여준다.

색채 항목에서는 ‘가벼운/무거운’ 항목이 평균 6.23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탄화목재의 어두운 색조와 전면 매스가 예배공간 안에서 시각적 무게감과 중심성을 형성하였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사례의 강대상은 개척교회 예배공간에서 과도한 장식성이나 권위성을 강조하지 않으면서도, 예배의 전면 중심에 놓이는 조형 대상으로서 일정한 상징적 존재감을 형성한 것으로 해

석된다.

다만 '권위적인/관용적인' 항목은 평균 4.12, '무딘/날카로운' 항목은 평균 4.15로 중간값에 가까웠다. 이는 강대상이 종교적 상징물로서 일정한 중심성과 엄숙성을 유지하면서도, 곡률과 형태 조정을 통해 지나친 권위감이나 날카로운 인상을 완화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매끄러운/거친' 항목은 평균 3.02로 나타나 탄화 표면이 과도하게 거칠게 수용되지는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정서적 이미지에서는 '친근한/두려운' 항목이 평균 4.98로 나타나, 강대상이 예배공간 안에서 일정한 종교적 긴장감과 엄숙성을 동반하는 대상으로 수용되었음을 보여준다. 반면 '기쁜/우울한' 항목은 평균 3.21로 나타나 중간값보다 다소 밝은 정서에 가까웠다. 종합하면, 본 강대상 디자인은 교인에게 동적이고 유연하며 부드럽고 무게감 있는 조형 이미지로 수용되었으며, 개척교회 예배공간 안에서 절제된 상징성과 시각적 중심성을 함께 형성한 것으로 해석된다.

4-4. 상징적 의미 수용 분석

상징적 의미 수용은 강대상 디자인에 적용된 십자가와 불의 상징이 교인에게 어느 정도 의미 있게 받아들여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항목이다. 십자가는 강대상의 형태와 구조를 통해, 불은 탄화된 목재 표면과 질감을 통해 표현하였다. 두 항목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 상징적 의미 수용 경향 분석 결과 (n=63)

구분	문항	M	SD	수용 경향
십자가 상징	십자가 형상에서 고난과 구원의 의미가 느껴짐	4.19	.820	비교적 높게 수용됨
불의 상징	탄화 표면이 죽음과 생명의 양가성을 내포한다고 해석됨	3.06	.821	제한적으로 수용됨

분석 결과, 십자가 상징에 대한 수용은 평균 4.19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강대상의 전면 구조와 중심축이 교인의 십자가 의미 수용과 비교적 명확하게 연결되는 경향을 보였음을 의미한다. 특히 십자가는 교회공간에서 이미 공유된 종교적 상징이기 때문에, 형태적 단서만으로도 교인이 그 의미를 비교적 쉽게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불의 상징에 대한 수용은 평균 3.06으로 중간

값에 가까웠다. 이는 탄화 표면이 강대상의 질감과 색채, 시각적 무게감을 형성하는 데에는 기여하였지만, 죽음과 생명의 양가성이라는 구체적 상징 의미까지 교인에게 명확하게 수용되지는 않은 경향을 보여준다. 불의 상징은 십자가에 비해 직접적인 도상으로 제시되지 않았고, 탄화된 표면의 물성과 질감을 통해 간접적으로 표현되었기 때문에 해석의 폭이 상대적으로 넓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강대상 디자인에서 상징의 전달 방식에 따라 수용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십자가처럼 교회공간에서 관습적으로 공유된 상징은 형태와 구조를 통해 비교적 명확하게 수용되었다. 반면 불의 상징처럼 재료의 변형 흔적과 질감을 통해 간접적으로 표현된 상징은 조형적 인상으로는 수용되었으나, 그 의미가 구체적 언어로 해석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강대상 디자인의 상징적 의미 수용은 이 중적인 결과를 보인다. 십자가의 형태적 상징은 교인에게 비교적 안정적으로 수용되었지만, 탄화 표면을 통한 불의 상징은 제한적으로 수용되었다. 이는 본 사례에서 상징을 절제된 방식으로 표현할 경우 조형적 깊이와 해석 가능성은 확보할 수 있으나, 상징 의미의 명료성은 낮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4-5. 신앙적 의미 수용 경향 및 집단 간 차이 분석

신앙적 의미 수용 경향은 강대상 디자인이 교인에게 예배공간 안에서 신앙적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정도를 탐색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항목이다. 본 항목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강대상 디자인에 대한 신앙적 의미 수용 경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또한 성별, 연령대, 신앙생활 기간에 따른 수용성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고, 집단 간 차이의 실제적 크기를 확인하기 위해 Cohen's *d*를 함께 산출하였다.²¹⁾ 분석 결과는 [표 11]과 같다.

[표 11] 신앙적 의미 수용 경향의 집단 간 차이 (n=63)

집단	구분	N	M	SD	t	p	Cohen's d
성별	남성	25	3.12	.781	-5.299***	<.001	1.36
	여성	38	4.21	.811			
연령대	청년층	28	3.64	.989	-1.000	.321	.25
	중년층	35	3.88	.811			

21) Cohen, J.,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2nd ed., Lawrence Erlbaum Associates, 1988, p.25.

	중장 년층	35	3.89	.932			
신앙 생활 기간	7년 이하	35	3.29	.789	-5.546 ***	<.001	1.41
	8년 이상	28	4.39	.786			

* $p<.05$, ** $p<.01$, *** $p<.001$

전체 응답자의 신앙적 의미 수용성은 평균 3.78, 표준편차 0.958로 나타났다. 이는 제작된 강대상 디자인이 교인에게 전반적으로 신앙적 의미를 지닌 대상으로 수용되는 경향을 보였음을 의미한다. 즉 강대상은 단순한 설교대나 예배 가구에 머무르지 않고, 예배공간 안에서 조형적 이미지와 종교적 상징을 통해 신앙적 의미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보였다.

성별에 따른 신앙적 의미 수용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여성 집단의 평균은 4.21, 표준편차 0.811로 나타났고, 남성 집단의 평균은 3.12, 표준편차 0.781로 나타났다. 두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t=-5.299$, $p<.001$ 로 확인되었다. Cohen's d 는 1.36으로 큰 효과크기에 해당하였다. 이는 본 사례에서 여성 교인이 남성 교인보다 강대상 디자인의 조형성과 상징성을 신앙적 의미로 수용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음을 의미한다. 다만 이 결과는 성별 자체가 신앙적 의미 수용성의 직접 원인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해당 교회공간 안에서 형성된 예배 참여 방식, 상징 해석, 정서적 수용의 차이가 응답 경향에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연령대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청년층의 평균은 3.64, 표준편차 0.989였고, 중장년층의 평균은 3.89, 표준편차 0.932로 나타났다. 중장년층의 평균이 청년층보다 다소 높았으나, 두 집단 간 차이는 $t=-1.000$, $p=.321$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Cohen's d 는 0.25로 작은 효과크기에 해당하였다. 이는 본 사례에서 강대상 디자인의 신앙적 의미 수용 경향이 특정 연령층에만 뚜렷하게 제한되어 나타나기보다, 교회공간을 공유하는 교인 전반에서 비교적 유사하게 형성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신앙생활 기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8년 이상 집단의 평균은 4.39, 표준편차 0.786으로 나타났고, 7년 이하 집단의 평균은 3.29, 표준편차 0.789로 나타났다. 두 집단 간 차이는 $t=-5.546$, $p<.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Cohen's d 는 1.41로 큰 효과크기에 해당하였다. 이는 본 사례에서 8년 이상 신앙생활을 한 교인 집단이 7년 이하 집단보다 강대상 디자인에 담긴 종교적 상징과

예배공간의 의미를 신앙적 차원에서 더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경향을 보였음을 의미한다.

종합하면, 제작된 강대상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신앙적 의미 수용성을 보였으며, 특히 성별과 신앙생활 기간에 따라 수용 정도의 차이가 확인되었다. 반면 연령대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신앙적 의미 수용성은 단순한 연령 구분보다 교회공간 안에서의 신앙생활 기간이나 상징 해석 경험과 더 밀접하게 관련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러한 결과는 강대상 디자인이 교인의 신앙심을 직접 변화시켰다는 인과적 효과로 해석하기보다, 개척교회라는 맥락특수적 장 안에서 교인들이 강대상 디자인을 조형적·상징적·신앙적으로 수용하는 경향의 차이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5. 결론

본 연구는 개척교회 예배공간에 적합한 강대상 디자인을 개발하고, 제작된 강대상에 대한 교인의 사용자 수용성 경향을 단일 사례 차원에서 탐색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개척교회 강대상을 제한된 공간 조건, 목회자와 교인의 관계, 예배 의례, 종교적 상징체계, 교인의 신앙적 수용이 결합된 맥락특수적 디자인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연구는 개척교회 예배공간의 맥락 설정, 사용자·사용환경 관계 해석, 십자가와 불의 상징 해석, 디자인 콘셉트 및 조형언어 도출, 제작과 설치, 사용자 수용성 경향 분석의 절차로 진행하였다.

디자인 개발에서는 '절제된 상징적 소통'을 핵심 콘셉트로 설정하고, 십자가는 강대상의 형태와 중심 구조로, 불은 탄화목재의 표면, 질감, 검정·균청 계열의 색채로 전환하였다. 사용자 수용성 경향 분석 결과, 교인들은 강대상을 동적이고 유연하며 부드럽고 무게감 있는 조형 대상으로 수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상징적 의미 수용에서는 십자가의 고난과 구원 의미가 비교적 명확하게 수용된 반면, 탄화 표면을 통한 불의 양가적 의미는 제한적으로 수용되었다. 신앙적 의미 수용 경향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났고, 성별과 신앙생활 기간에 따른 차이가 확인되었으며, 연령대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맥락특수적 디자인 프로세스의 관점에서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종교공간의 디자인 대상은 기능적 사용성과 조형적 완성도만으로 설명되기 어렵다. 강대상은 목회자가 사용하는 설교대이면서 동시에 교인이 예배 중 지속적으로 바라보고 해

석하는 상징적 대상이다. 따라서 강대상 디자인은 사용자와 사용환경의 관계, 예배 의례, 공동체의 신앙적 정체성, 종교적 상징체계를 함께 고려할 때 더 적절하게 계획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복합적 조건을 디자인 콘셉트와 조형언어로 전환하고, 이를 제작·설치와 사용자 수용성 경향 분석으로 연결했다는 점에서 맥락 특수적 디자인 프로세스의 적용 가능성을 보여준다.

둘째, 사용자 수용성 경향 분석은 완성된 디자인 결과를 보편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라기보다, 디자인 개발 과정에서 도출한 조형언어가 실제 사용 맥락 안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를 확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조형적 이미지 수용, 상징적 의미 수용, 신앙적 의미 수용 경향은 각각 디자인에서 의도한 형태, 상징, 신앙적 의미가 실제 교인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를 보여준다. 특히 십자가 상징은 비교적 명확하게 수용되었으나, 탄화 표면을 통한 불의 상징은 제한적으로 수용되었다는 결과는, 상징을 절제된 방식으로 표현할 때 조형적 깊이는 확보될 수 있지만 의미 전달의 명료성은 낮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향후 종교공간 디자인에서 상징의 직접성과 해석 가능성 사이의 균형을 검토해야 함을 보여준다.

셋째, 본 연구는 개척교회와 같은 소규모 공동체 공간에서 디자인이 공동체의 신앙적 경험과 정체성 형성에 관여할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개척교회는 공간 규모가 제한적이고, 목회자와 교인의 심리적 거리가 상대적으로 가까우며, 예배공간이 공동체 형성의 중심으로 작동한다. 이러한 조건에서 강대상은 단순한 물리적 설비가 아니라, 공동체가 공유하는 신앙적 의미를 시각적으로 매개하는 조형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개척교회 강대상 디자인은 기존 교회 가구의 축소형으로 접근하기보다, 해당 공동체의 공간 조건과 상징 수용 방식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개척교회 강대상 디자인을 맥락 특수적 디자인 프로세스에 따라 개발하고, 이를 실제 예배공간에 설치한 뒤 교인 중심의 사용자 수용성 경향 분석으로 검토하였다는 점에 있다. 특히 연구는 맥락 분석, 상징 해석, 조형언어 도출, 제작, 설치, 사용자 수용성 경향 분석을 하나의 연구 흐름으로 연결하였다. 이를 통해 종교공간 디자인에서 사용자를 단순한 조작 주체가 아니라, 조형적 이미지와 상징적 의미를 해석하고 신앙적 차원에서 받아들이는 수용 주체로 설정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단일 개척교회를 대상으로 한 사례 연구이므로, 결과를 모든 교회공간이나 강대상 디자인에 일

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설문에는 전체 교인 83명 중 63명이 참여하여 대상 교회 내부의 사용자 수용성 경향을 파악하기에는 비교적 높은 참여율을 확보하였으나, 교단, 예배 형식, 공간 규모, 공동체 성격이 다른 교회에서도 동일한 수용 경향이 나타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본 연구는 교인 중심의 사용자 수용성 경향 분석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목회자의 장기적 사용성, 설교 행위의 편의성, 유지관리성, 구조적 안정성에 대한 평가는 충분히 다루지 못하였다. 기존 강대상과의 비교평가나 목회자의 기능적 사용성 검증도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제작된 강대상의 기능적 우수성이나 대안적 효과를 일반화하여 주장하는 데에도 제한이 있다. 아울러 상징적 의미 수용과 신앙적 의미 수용은 단일 문항을 통해 탐색적으로 확인한 결과이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다문항 척도 구성, 사전·사후 비교, 목회자 사용성 평가, 복수 교회 사례 비교를 통해 분석의 타당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적용한 맥락특수적 디자인 프로세스와 사용자 수용성 경향 분석을 교회공동체를 넘어 다양한 공동체 기반 공간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대안학교, 요양병원, 복지시설, 지역 커뮤니티 시설, 문화시설 등은 각기 다른 사용자 관계, 공간 규범, 공동체 정체성, 상징체계를 지닌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공간의 맥락특수성을 분석하고, 이를 디자인 콘셉트와 조형언어로 전환한 뒤, 실제 사용자의 수용성 경향을 분석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확장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본 연구의 접근은 종교공간에 한정되지 않고, 공동체적 의미와 사용자 수용이 중요한 다양한 디자인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쿠르트 레빈, 박재호 역, 『사회과학에서의 장이론』, 민음사, 1987
2. Beyer, H. and Holtzblatt, K., 『Contextual Design: Defining Customer-Centered Systems』, Morgan Kaufmann Publishers, 1998

3. Cohen, J.,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2nd ed., Lawrence Erlbaum Associates, 1988
4. Saussure, F. de, 『Course in General Linguistics』, Open Court, 1983
5. 김수현, '불의 상징에 대한 연구', 한국모래놀이치료학회, 모래놀이상담연구, Vol.16, No.1, 2020.05
6. 김정오, 이재규, '교회공간의 빛과 강대상의 상징성에 관한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Vol.10, No.2, 2015
7. 박병기, '장이론의 발전과정 및 내용이 교육학에 던지는 도전적 과제들', 한국교육원리학회, 교육원리연구, Vol.8, No.1, 2003.03
8. 박우영, '한국 사회 내 교회 공간 읽기와 공간 구조 균열 만들기: 폭력과 통제의 공간에 대한 기독교윤리학적 고찰',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기독교사회윤리, No.27, 2013
9. 양창삼, '쿠르트 레빈의 생애와 사상', 한양대학교 반월캠퍼스, 밀물, 제3호, 1985
10. 윤주현, '디자인 협력과 디자인 교육을 위한 맥락적인 시스템 디자인 프로세스', 한국디자인학회, 디자인학연구, Vol.33, No.4, 2020
11. 임세실리아,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표현연구', 한국꽃예술학회, 한국꽃예술학회지, No.18, 2012
12. 정현원, 나건, '감성 평가를 위한 감성의 의미 재정립과 어휘 체계에 관한 연구', 대한인간공학회, 대한인간공학회지, Vol.26, No.3, 2007
13. 한명흠, '가구디자인에 관한 감성평가연구: 접이식 의자를 중심으로',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Vol.30, No.3, 2021
14. Kim, A. and Park, H. J., 'Developing a design-led evaluation model for citizen-centered public services: a South Korean case', Policy Design and Practice, Vol.8, No.4, Taylor & Francis, 2025
15. 김정오, '교회공간의 빛과 강대상의 상징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디자인콘텐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16. 이정구, '좋은 교회 공간', 새가정사, 새가정, 제68권, 2021